



3면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주매일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음 12월 6일) 제31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 시동

전북도, 국방과학연구소 군산대와 업무협약 체결

2024년부터 탄소섬유 활용 위성발사체용 구조체 개발

전북도가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해 위성 발사체 개발에 뛰어든 등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위성발사체용 구조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인 각 기관들은 초고강도 국산 탄소섬유 등 소재 및 추진체 구조물의 공인인증체계 구축과 방위산업용 탄소섬유 수급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각 기관 상호간 인력 양성 및 교류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가 국방·우주분야 신산업에 진출하는 첫걸음이어서 주목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으로 사업비 360억원(국비 300)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전문연구센터(1만㎡)를 구축,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전문연구센터가 완료돼 본격 가동하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위성발사체용 구조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김관영 도지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게 되면 우주발사체용 추진체에 대한 시험·검정·평가 가능해져 관련분야 국내 우수기업들의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민간기업과 군에서는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

소산업의 핵심 수요처인 국방·우주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탄소복합재 핵심 기업을 도내 유치해 탄소 소재 개발, 완성품 제작과 인증까지 가능한 가치사슬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방·우주 발사체용 추진체에 국산 탄소섬유가 사용 가능해져 국가적으로 소재 지원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며 "새만금과 탄소산업이라는 전북도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북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의 방산 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국산 탄소섬유라는 신소재를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길인 만큼 모두가 단합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북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세계·안전·복지 등 9개 분야 109건 수록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 책자는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09건의 제도·시책을 세계, 안전, 문화,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으로 별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세계·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4건, 농·축·수산·식품 19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33건, 환경·복지 11건, 건설·교통 9건, 경제·산업·청년 14건, 교육·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하여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자북도 홈페이지(www.jonbuk.go.kr)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부동산 - 일시적 2주택

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개인자산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재난안전·소방 - 화재의 예방 조치 의무 신설,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확대

▲농·축·수산·식품 - 농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문화·체육·관광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복지·여성·보건 - 지원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에 자립수당·자립정착금 확대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전북형 난민수술비 추가 지원.

▲환경·복지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건설·교통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경제·산업 -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전북청년 함께 두배작업 신설.

▲교육·일반행정·법무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 /김재훈 기자

백제 공예의 정수, 발견 14년 만에 국보 되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 고시

세계유산 도시 익산에 백제시대 공예의 정수(精髓)로 알려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가 국보로 지정되며 다시 한번 백제역사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였다.

익산시에 따르면 백제시대 공예의 정수(精髓)로 알려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가 27일 문화재청(청장 최웅)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고시됐다.

2009년 미륵사지 서탑 보수공사사업 중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장기간의 보존처리와 학술조사를 거쳐 2018년 보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국립익산박물관 대표유물로 전시되고 있으며 발견된 지 14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다.

익산 미륵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의 동력으로 큰 역할을 했던 익산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는 지난 2009년 1월 14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心柱石) 탑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의 사리공(舍利孔, 불탑 안에 사리를 넣을 크기로 뚫은 구멍)에서 나온 9,900여점의 유물이다.

이번에 지정된 국보는 639년(백제 무왕 40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봉영기(金製舍利奉迎記)와 함께 금동사리외호(金銅舍利外護) 및 금제 사리내호(金製舍利內護),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은 청동함(靑銅函) 6점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금제 사리봉영기'. (사진=익산시청 제공)

을 포함해 총 9점으로 구성돼 있다.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불탑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용기나 함께 봉안되는 모든 공양물(供養物)을 말한다.

금제 사리봉영기에는 백제 왕후좌평(佐平) 사백적덕(沙宅積德)의 딸가 재물을 시주해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무왕조에 전하는 미륵사 창건설화를 구체화해 미륵사지 서탑의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져 사리장엄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유물이다.

사리내·외호는 그릇 표면의 연관문과 당초문 등이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었고, 몸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닫

는 독창적인 구조로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맛이 한껏 돋보인다.

6점의 청동함 중 하나에는 '상부달솔묵근'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시주자의 신분과 공양품의 품목까지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 크며, 각종 공양물 넣어 봉안된 청동함들은 우리나라 유기(鑄器) 제작 역사의 기원을 밝혀 줄 중요한 자료이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백제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서탑 사리공에서 639년(백제 무왕 40년) 봉안 당시 모습 그대로 발굴되어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당대 최고급 재료와 최고의 기술력이 응집되어 탁월한 예술품으로 승화되어 한국공예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유물로서 그 위상이 높다.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증명해주는 한편 동아시아 사리공예품의 대외 교류를 밝혀 주는 자료로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매우 커 국보로 지정해 영구히 보존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 국보 승격으로 백제 왕도 익산의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어 감격스럽고 문화재청, 국립익산박물관과 더불어 잘 보존해 후대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도, 내년 상반기 승진 내정자 발표

국장급 내정에 이남섭·김윤기

전북도는 27일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 내정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국·과장급, 팀장급 및 6급 이하 승진요인이 발생해 단행된 것으로, 국장급 2명, 과장급 11명, 팀장급 25명, 6급 이하 30명 등 총 68명이 승

진 내정됐다.

국장급 승진 내정자는 이남섭 전북도 총무과장(57)과 김윤기 도로공항공정 도과장(58)이다.

이남섭 총무과장은 우석고와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19년에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기업지원과장과 혁신성장정책과장과 순창군 부군수 등을 지냈다. 김윤기 도로공항공정 도과장은 전주고



이남섭



김윤기

와 전북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도 도로계획팀장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 전문위원, 도로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훈 기자

謹賀新年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용지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전주페이퍼